

국가 재생에너지 수도로 시민과 함께 비상

〈飛上〉

군산시는 2026년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재생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창출한 성과를 시민의 삶 속 변화로 연결하는 체감형 시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2026년 신년 브리핑을 통해 '군산의 더 큰 미래와 시민의 든든한 일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주권을 바탕으로 군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완성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의 결실을 시민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려주는 시정을 핵심 방향으로 밝혔다.

특히, 강한 경제(RE100)로 축적한 성과를 민생 중심의 체감 행정으로 환원해 △민생경제 △기초복지 △교통·재난안전 △문화·휴식 △교육·청년 5대 시민 체감 과제를 완수하고,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사회의 초석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최근 2026년 신년 브리핑을 열고 향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 주권으로 여는 군산의 미래 100년 - 대한민국 제1호 RE100 산업단지 공식 지정 추진

2018년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시작한 이후,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

그 결과, 이차전지 산업은 이미 본궤도에 올라 27개 기업 9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냈으며, 2026년 '대한민국 제1호 RE100 산업단지' 공식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을 역점 추진해, 군산의 바람과 태양으로 만든 에너지가 기업을 돌리고, 시민의 소득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완성하고,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지방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 도시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경제의 결실을 시민의 일상으로

군산시는 2026년을 경제 성장의 결실이 시민 누구에게나 체감되는 해로 만들기 위해 5대 시민 체감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의 활력이 골목과 농어촌까지 흐르도록 한다.

이차전지 산업과 RE100 산업단지의 성과가 기업 담장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군산·서창상품점 4,000억원 발행 △공공 배달업 '배달의 명수' 운영 △동네문화카페·골목상점가 확대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 복리보증 확대 및 이차보전

지속 지원,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한다.

농촌에서는 청년 주도의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과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총 134억원 규모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 소득 기반과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으로 농촌 근로 여건을 개선하며 일손 부담을 완화한다.

어업 현장에서는 스마트 수산식품 수출기공 종합단지 조성, 물류 자동화 정비, 비응항 위 관광 현대화 사업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를 이끈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해 소득을

얻는 햇빛소득마을'을 본격 준비해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간다.

기본복지 분야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세심한 복지'도 실현한다.

전북대병원 건립에 속도를 더하고, 군산형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의료와 돌봄이 연결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으로, 힘든 치료 과정 속 시민의 자존감까지 세심히 살핀다.

또한 군산형 가사서비스', '우리동네 흥반장',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등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되는 복지를 완성한다.

교통·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출퇴근길은 더 빨라지고, 재난으로부터는 더 안전해진다.

빅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배차 간격 조정으로 이동 편의를 높이고,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과 산업단지 수요 응답형 버스(DRT) 도입 검토를 통해 교통 소외 지역과 산업 현장까지 꼼꼼히 챙긴다. 아울러 주요 교차로에 AI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난여름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인명 피해 '제로'를 지켜내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약 3,000억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재해 취약 지역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침수 취약 지역에 추진 중인 2,000억원 규모의 재해 예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침수 우려 주택·상가에는 차수관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집중호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2025년 산업단지 주변에 설치한 첨단 가스 누출 감지 센서를 상시 모니터링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사전에 차단하며 시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킨다.

문화·휴식 분야에서는 도시는 쾌적해지고,

일상은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진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을 확대하고, 군산의 근대문화 자산을 세계와 연결하는 근대문화 비엔날레를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으로 미래경쟁력을 키워나간다.

이와 더불어, 상상도서관 건립, 철길숲 확장 및 청암산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정원도시 군산을 만들어간다.

월명공원에는 전망대와 달빛마루를 완공해 새로운 야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공원으로 격상시킨다.

아울러 직접 뛰고 즐기는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를 구현한다. 금강·군봉 축구장의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월명 국민체육센터와 군산대 지역연계 복합센터 내 상생형 수영장을 건립해 시민들의 수영장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를 비롯해 16개의 굵직한 국제·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스포츠를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 동력으로 연결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년 분야에서 교육이 곧 취업이자 미래가 되는 도시를 만든다.

군산 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공부의 명수'와 더불어, 방학 중 점심 지원, 1:1 원어민 화상영어 등 교육발전특구의 혜택을 아이들의 일상 속으로 확산시킨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예체능 교육지원 바우처(꿈타입 사업)를 새롭게 도입해,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해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을 전면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대학·기업 연계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RE100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600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군산에서 자란 인재가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고, 군산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 정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

▲2026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수도, 시민의 일상이 든든한 도시로 도약

2026년 군산시는 대한민국 제1호 RE100 산업단지 공식 지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세심한 민생 정책으로 그 성과를 시민의 삶 속에 채워간다.

아울러 군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전주권을 '행정중심권역'으로 한다면, 군산·익산·김제·부안을 '산업중심권역'으로 연계하는 행정통합 담론에 대해서도 시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과정은 '시민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2,000여 공직자의 변함없는 열정과 도전에 바탕으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수도이자 시민의 일상이 든든한 도시로 힘차게 비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여름이여 안녕
지리산허브밸리

피어나다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2026 겨울방학 특별기획전

나개와 향기 로 겨울을 뚫는다

2025년 12월 25일 ~ 2026년 2월 22일

지리산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주최 · 주관 :  남원시

2월 9일(월요일), 2월 19일(목요일) 휴관 / 문의 : 063-620-5752~4